

ἩΝΘΩΝΡΟ ἸΜΡΟΝΡΕ 박사Æ 창세기Æ ĆĆ회Æ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재회함Æ 창세기 ĆĆÆÇD장 © 2024 케네스 매튜스 및 테드 힐데브란트

Kenneth Mathews 박사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23회기, 요셉이 형제들과 재회함, 창세기 42-45장입니다.

23과에서는 42장부터 45장까지에서 그의 형제들과 재회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된 요셉 이야기의 주요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주요 사상과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족장들의 삶을 감독하고 계시며, 어떤 방식으로 족장들의 삶을 감독하실 것인지를 서술적인 방식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이스라엘. 그리고 이것이 사실임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방법은 국가 측면에서 족장들과 그 후손들 사이의 유사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과 마찬가지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발견하며, 두 경우 모두 아브라함이 일어나 바로에 의해 부요해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과 야곱의 집안도 마찬가지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출되어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번영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생존과 번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몇 가지 개념은 이 장들이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를 묘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회했습니다.

그래서 재회한 형제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그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장사될 때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32장과 33장에서는 야곱과 에서의 화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약속된 축복을 항상 위협하는 가족 내 분열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분열은 37장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이 장들, 특히 42장부터 43장까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곧 형제니 우리가 형제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있으며,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죄의식과 수치심, 그리고 형벌의 무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우리에게 목숨을 구했을 때 그 사람, 즉 그들의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37장에서 이에 대해 말하지 않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마음 속에 미움과 냉담함을 가지고 단지 그룹 중 가장 어린 십대로서 그의 간청을 거부하고 저항했지만 우리는 간청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듣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 것입니다. 물론 루벤은 이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22절에서 그는 이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당신에게 말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제 저와 함께 28절, 42장, 28절을 보세요. 그 구절의 두 번째 부분에서 그들이 배낭에서 은을 발견했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이 은화를 훔친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굴욕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땅을 염탐했다는 혐의로 기소될 것이며, 도둑질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이 가라앉고 떨어져 서로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은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요셉과 그들의 아버지 야곱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어찌 된 일이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장들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신다는 느낌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달려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 언어는 그 자체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여기서의 개념은 그들이 유죄이며 그들의 범 죄가 그들에 대한 이 심판, 그들에게 임하는 형벌에 의해 정당하게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42장과 43장의 유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두 가지 여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장과 43장에서 형제들은 이집트로 두 번의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여행은 42장에서 베냐민 없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행은 43장에서 베냐민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셉이 형들의 경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들을 속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요셉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은 그의 형 베냐민이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는데 형들은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필사적인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어린 벤자민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틀림없이 베냐민은 그들의 아버지 요셉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벤자민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이미 요셉의 소중한 동생 베냐민을 제거했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이 사실을 배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애굽으로 가는 열 형제의 첫 번째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들을 이 사명으로 보낼 때, 2절에서 그가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 라고 말한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실제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벤자민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필요한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니다.

글쎄, 당신은 또한 야곱이 그의 아들들, 즉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 항상 의심해 왔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베냐민을 갖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의 집에서 태어난 마지막 아이이자 그가 가장 좋아하는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5장을 보면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간 결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드러났을 때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그가 요셉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5절에서는 다시는 자신에게 분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보다 먼저 보내신 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너희 생명을 구원하고 너희의 남은 자를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셨느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이 큰 기근 동안에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양식을 모으기 위해 애굽으로 들어간 모든 족속, 모든 나라들에게 확장된 구원이었습니다

. 분명히 전례 없는 기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0형제에 대한 언급은 증오스럽고 독설적인 종류의 형제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11번째 형제는 요셉이고, 그 다음 12번째 형제는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근의 역전을 겪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는 배부름, 기근, 배부름, 기근, 배부름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도덕적 기근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역전될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영적 활력, 영적 갱신,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형제들을 영접하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옷을 입고, 말하고, 행동하며, 이집트에서 큰 명성을 얻은 남자의 왕족의 영광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이르러 그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이제 그 중요성은 당신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절하는 일은 요셉이 37장에서 꾸었던 꿈에 투영되었는데, 단이 그의 단에 절하고 별과 해와 달이 그에게 절할 때였습니다. 이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결과임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왔다고 7절에서 선언합니다. 8절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동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러한 속임수는 테스트를 통해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 시험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았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을 심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남겨진 막내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스파이가 아닌 다른 사람들처럼 음식을 사겠다는 임무를 맡은 정직한 사람들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는 이 시험을 계획하여 그들이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14절, 셋째 날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니라.

그래서 그는 타협합니다. 19절을 보면: 너희가 정직하다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은 여기 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다가 내게로 데려오라. 이것은 당신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21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리고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고 르우벤은 주장합니다. 만일 당신이 내가 말한 대로만 했다면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24절: 거기서 그 사람이 요셉을 떠나서 울며 정신을 잃었더라. 그는 그랬고, 자신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지만 자신이 그들을 고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감옥에 남겨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25절에서 각 사람의 은을 도로 자루에 넣고 양식을 그들에게 주라고 명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들이 요셉에게 돈을 주고, 식량을 받고, 돌아간다는 속임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은밀하게 은을 대체함으로써 그것은 정탐꾼, 도둑이라는 죄목과 신뢰성을 완전히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엄청난 공포를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망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28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은 마음이 가라앉고 서로를 향하여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야곱에게 돌아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9절부터 34절까지에서 야곱에게 보고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경우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많은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3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 곧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우리에게 말하되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명하신 것을 그들이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는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므온을 놓아 주겠다.

그리고 34절에서 “당신은 우리와 계속 거래해도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음식과 생계가 필요할 때 우리 땅으로 들어올 수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말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36절 에서 너희가 나에게서 내 자녀를 빼앗았느니라.

요셉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벤자민을 데려가고 싶나요? 모든 것이 나에게 불리합니다.

이제 르우벤 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37절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만아들입니다. 당신은 그가 야곱의 아내나 여종 중 하나인 빌하와 근친상간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가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당신은 내 두 아들을 다 죽여도 되느니라 이제 그것은 절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 그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이름과 유산, 유산을 이어갈 자녀가 태어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문화에도 해당됩니다. 즉, 우리는 자신의 자녀를 처형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만드는 것에 대해 감히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를 당신들에게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내 아들 둘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를 나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내 아들은 너와 함께 그리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동생은 죽었습니다.

그는 남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가는 길에서 그에게 해가 닥치면 당신께서는 나의 백발을 죽음의 땅 스올에 끌어내리실 것입니다. 슬픔에 잠긴 무덤으로 옮겨졌습니다.

즉, 야곱은 만일 내가 너희의 속임수나 너희의 시기나 혹은 이 사람의 애굽에서 행한 어떤 연고 때문에 베냐민을 잃으면 내가 죽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목숨을 앗아갈 것입니다. 글썄요, 그러면 우리는 벤저민과 함께 하는 두 번째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나는 지난번에 야곱과 요셉에게만 명성이 주어졌고 유다에게도 영광이 주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43장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첫 구절에서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이제 그 땅에는 여전히 기근이 심했고, 물론 그들은 첫 번째 여행에서 처음에 가져온 개정판을 다 써버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은 후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먹을 것을 조금 사오라 하매 유다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하였느니라

우리 형제를 우리와 함께 보내 주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당신을 위해 음식을 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려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이집트 군주의 손에 투옥되거나 죽음을 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왜 당신은 다른 형제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에게 이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그분은 또한 세겜 사람들에게 살인적인 복수를 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34장에서 우리에게 상기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이 두 형제는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세겜 족속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할례를 이용했는데, 이는 히위 족속이라고도 불리는 왕자 세겜이 자기들의 여동생 디나를 납치하고 성추행하고 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당신이 나에게 주신 고난을 보십시오. 이제 나는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나는 나에게 대한 어떤 적대감과 보복도 당할 것입니다. 그는 내가 이웃의

콧구멍에서 악취를 풍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아들들이 나에게 큰 슬픔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안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집에 큰 슬픔이 임하였느니라. 8절 유다가 그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라 우리가 단번에 가리니 우리와 너와 우리 자손이 함께 하겠노라 살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그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당신은 나에게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그의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르우벤이 내 두 아들을 네게 주겠다, 그리고 유다를 주겠다고 제안한 사이의 움직임을 보십니까? 그는 개인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평생 동안 당신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10절 이제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갔다가 벌써 두 번 왔을 뻔하였느니라.

좋아요, 이제 Jacob은 이것의 필요성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그들의 길로 보냅니다. 그는 그 땅의 가장 좋은 생산물을 선물로 보냅니다.

1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막내 동생인 베냐민도 그들과 함께 보냅니다. 13절에 보면, 네 아우도 데리고 곧 내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기도입니다. 야곱은 말년에 걸쳐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에서를 만나러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당신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당신과 함께 돌려보내실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나는 유족이라면 유족입니다. 내가 가족을 잃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약속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께 이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가장 좋은 생산물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두 배의 은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제들이 정탐과 도둑질에 결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셉에게 많은 선물을 주는 것임을 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과거에 Jacob에게 꽤 효과적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야곱의 재산의 물결, 곧 그의 종들이 에서와 화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에서에게 바쳤던 그의 양떼를 기억하십니까? 에서는 이 말에 오히려 감동을 받았고, 그들이 화해할 수 있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야곱의 회개와 겸손의 표시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형 에서를 강탈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를 학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시 한번 그 사람과 요셉의 청지기 측에서 적어도 청문회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이 청지기에게 말한 대로 그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다시 테스트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것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읽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 23절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분명해질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그들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 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청지기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에 몇 가지 통찰력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네 자루에 보물을 담아 네게 주셨느니라 나는 당신의 은화를 받았습시다. 그런 다음 그는 시므온을 데리고 나왔습시다.

그래서 형제들의 상황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계획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요셉이 도착하여 선물을 보고 다시 절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요셉의 꿈과 일치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우에 그들이 한 일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안부를 물었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한 당신의 연로한 아버지는 안녕하십니까? 그 사람 아직 살아있나요? 그러자 그들은 “네, 우리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시고 건강하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몸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어머니의 아들인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다, 이 사람이 당신의 막내 동생인가요?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네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는 서둘러 나갔다.

그는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형제들이 변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베냐민을 이용하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자, 이것이 32절 이하에서 언급되어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그들은 요셉만을 섬겼습시다.

그럼, 이것을 상상해보세요. 여기 그들은 식사가 진행되는 이 집에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형제들과 따로 음식을 먹는 애굽 사람들과 떨어져서 멀리서 요셉을 섬겼습시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는 남자들이 나이순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맏아들부터 막내까지.

그리고 그들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몫을 주게 되자 베냐민의 몫은 다섯 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인 줄 모르고 요셉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마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가지. 하나는 이집트에서 목자들을 멸시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문화, 더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음을 구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사에 있어서 이러한 분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한 곳에는 이집트인이 있고 다른 곳에는 히브리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바로는 야곱의 가문에게 고센이라 불리는 매우 번영하는 땅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의 뒷부분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볼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집트 대중과 분리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형제들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기 전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방식입니다.

이제 도덕적 타락은 형제들이 조상의 위대한 전통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은 물론이고 야곱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인과 분리된 덕분에 그들은 고유한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에 대한 인식을 되살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재검토하고, 온 세상, 열방, 하나님의 축복이로다.

이것이 우리가 명심해야 할 첫 번째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에게 다섯 배를 주면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말다툼이 될까요? 괴로움이 될까요? 증오가 될까요? 이것이 바로 조셉이 배우러 오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제 44장에서 우리는 형제들에 대한 시험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앞쪽과 중앙에 온다. 청지기에게 이르되 너는 내 잔 곧 은잔을 가져다가 막내 베냐민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곡식값 은도 함께 넣어 달라 하느니라. 즉, 곡물을 사는 데 사용된 은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셉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자, 이 잔은 신들의 뜻, 미래를 발견하는 수단인 점술사의 잔입니다. 자, 이것은 단지 인공물일까요? 이것은 단지 요셉의 삶에 있어서 장식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그가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믿었던 것이었습니까

? 물론 그것은 요셉이 이집트 문화에 점점 더 동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라헬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훔쳤던 드라빔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남자들은 그냥 앉아서 자기 할 일만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잡아 점치는 주인의 잔을 훔치고 악한 자들이라고 비난합니다.

이 잔, 곧 주인의 개인 물품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당황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11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은 각자 빨리 자루를 땅에 내려 놓고 열었습니다.

그런 다음 청지기는 가장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하여 가장 어린 사람까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자루가 발견되는 드라마를 상상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잔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또 그 옷 모티브가 있군요. 보시다시피 그것은 재난에 대한 가장 씩씩하고 쓰라린 감정적 반응의 신호였습니다. 이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다른 것이 있었을까요? 만일 그것이 자기 아들들을 잃는 것을 의미했다면 르우벤은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베냐민.

소중한 벤자민을 우리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16절에서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그룹을 이끌면서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결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16절.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악을 드러내셨나이다. 주님, 이제 우리는 노예입니다.

우리 자신과 그 잔이 발견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유다가 그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주의 종들로 내 주께 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는 형제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내가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그 아이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내 아버지가 그 아이가 없어진 것을 본즉”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죽을 것이다. 당신의 종들은 우리 아버지의 백발을 슬픔에 잠겨 무덤으로 내려가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종은 자기 이름으로 내 아버지에게 아이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 평생에 내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짊어지리이다 하였나이다 요셉이 발견한 것은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아버지에게 행한 일에 대해 진정한 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을 잃어도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해방시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달라는 간청이 있습니다. 이제 45장에 이르러 요셉은 1-38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처음 15절에서 그는 자신을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흠을 치워라! 그가 크게 울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고 바로의 궁중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여기 3절에서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었으며, 형제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었습니까?

저는 조셉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버지에게 대한 사랑과 열정을 보여줍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시나요? 그러나 그의 형들은 그가 나타나기를 두려워하여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나는 여기서 야곱에게 달려가서 포옹하고 입을 맞추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후에 그가 이르되 나는 너희가 애굽에 판 자 요셉이라 하니라

이제 그는 그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러분보다 먼저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해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밭을 갈거나 수확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7절에 큰 구원으로 너희의 남은 자를 세상에 두시고 너희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셨느니라. 따라서 이것이 식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37장에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 의해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보고를 가져오기 위해 세겔리로 보내졌을 때 세겔리 지역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는 잃어버린 누군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있었다고만 듣게 됩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우리는 그 사람이 실제로 사람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천사일 수도 있고, 사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일이 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니라 너희 형제들이 도단에 내려갔으니 거기서 그들을 만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날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도단에 모으는 수단으로 이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매우 특이한 사건의 전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이 하나의 연대, 하나의 연합으로 재결합되도록 다시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꿈을 사용하신 방식입니다.

37장의 꿈은 단과 별의 경우에 주인과 형제 사이에 통일, 통일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50장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죽음과 그의 장사 이후에 아들들은 그들의 두려움 속에서 다시 불붙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들은 야곱이 살아 있는 한 요셉이 그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 는 당신의 종이라 하더라. 그러나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가? 당신은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 곧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선으로 이루시려고 그것을 의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셉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에게도 변화가 찾아온다. 그는 더 이상 잊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의 이름을 르낫세라고 지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가족의 모든 슬픔. 오히려 그는 그의 아버지 야곱의 유산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인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제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 요셉이 겪었던 시련, 야곱이 겪었던 시련, 해마다 그 형제들 자신이 겪었던 죄책감과 수치심, 그 모든 슬픔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임의적이지 않았습니 다. 그것은 변덕스럽지 않았습니 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손실, 슬픔, 투쟁, 죄인으로서의 실패, 부도덕, 타인에 대한 공격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책임, 인간의 책임, 인간 행동을 이루시는 더 큰 틀 안에 놓을 때, 그분은 지금도 이 생명의 실을 취하여 우리의 첫 조상의 죄로 인해 에덴동산에서 위협을 받은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의 아름다운 옷을 짜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 이것을 추적해 보면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위협을 몇 번이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협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위협이 무엇이든 그분께서 극복하신 것보다 크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이제 그는 돌아가서 야곱을 불러 가족들을 여기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귀하에게 조항이 제공될 것입니다.

14절.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그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들 모두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형제들이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건 좀 제쳐두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죠? 그 후에 그의 형제들이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형 요셉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표현은 요셉의 마음, 특히 이 형제들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7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형을 심히 미워하여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므로 그와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지금, 이 모든 시련을 겪은 후에 이것은 이 가족에게 일어난 큰 변화의 표시입니다. 이제 파라오의 승인을 받아 파라오가 그들이 돌아올 때 살 곳을 따로 마련해 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는 요셉이 그의 가족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7절에서 바로처럼 내가 애굽 땅의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땅의 기름진 것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애굽 전체 중에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23절에서는 이집트의 가장 좋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형들을 보내면서(24절) 이르되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더라.

내 생각에 그 사람은 자기 형제들의 성격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또한 지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버지와 함께 갔다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집트에서 올라와 아브라함을 먼저 맞이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아직 살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느낌입니다. 야곱의 마음 속에는 요셉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사실 그는 이집트 전체의 통치자입니다.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다 말하리라. 그리고 요셉은 수레들을 보고 그를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되었습니다. 야곱에게도 부활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나는 죽기 전에 그를 만나러 갈 것이다. 다음 세션에서는 46장부터 시작하여 가족이 함께 이집트로 돌아오는 위대한 귀환을 봅니다.

이것은 Kenneth Mathews 박사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23회기, 요셉이 형제들과 재회함, 창세기 42-45장입니다.